



계란규격 개정 요청

— 일본 전국 계란규격유통협의회(EPC) —

일본의 EPC는 올들어 농림수산성(축산국장)에 계란규격개정을 요청했다.

계란규격개정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東西鷄卵荷受協議會, 全鷄會議 등이 농림수산성에 요청한바 있으나, 농림수산성으로서는 현재 규격개정작업을 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현재의 계란규격은 지난 80년에 개정된 것으로서,

LL-70~76g

L -64~70

M -58~64

MS-52~58

S -46~52

SS-40~46으로 되어 있다.

이에 대하여

① 생산되는 계란은 사양기술의 향상 등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 평균난중이 무거워지고 있다.

② 현행 규격으로서는 SS 사이즈의 유통이 극히 적어지고 있다.

③ 사이즈의 중량을 높임으로써 소비도 늘것이다.

상기 이유를 들어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산자와 GP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.

• 이러한 가운데 東西鷄卵荷受協議會(全農, 東京鷄卵, 東洋鷄卵, 神奈川県 鷄卵商學協同組合, 大阪鷄卵販賣, 大阪東部鷄卵)에서는 지난 84년 8월 1일 현재의 거래규격이 현실

적인 계란생산유통에 합당치않다는 것으로 그 개정을 요청하였다.

• 東西鷄卵荷受協議會에서는 계란 유통 통계에 의한 계란규격별 도매량에 있어서 평균난중은 1979년의 62.53g이 1983년에는 64.14g으로 높아지고 각 사이즈의 유통량에 있어서도 SS 사이즈는 1983년은 0.5% 이하로 극히 적은 양만 유통되고 있는데서

① 현행보다 각 사이즈를 3g 높인다(6g 폭은 같다)

② 현행보다 각 사이즈를 2g 높인다(6g 폭은 같다).

③ 현행 6 단계를 5 단계(SS를 제외)로하여 각 사이즈의 폭을 7g 한다.

LL-72~79g

L -65~72

M -58~65

MS-51~58

S -44~51의 3안을 제시하고 있다.

• 또한 전국양계경영자회의에서도 1984년 9월 3일 현재의 생산유통실태에서 현행규격을 전체적으로 1g 높이도록 요청하고 있다.

이번의 EPC 동향은 이들 학계동향 가운데 계란규격 개정에 관한 회원 개개의 앙케이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요청한 것인데 전체적으로는,

① 각 사이즈를 1~2g 높인다(특히 L, M의 폭을 넓히자는 의견도 강하다).

② 유통량이 적은 SS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.

- 이에 관련해서 1984년 10월에 실시한 회원신고에 근거한 난중구분의 연간비율은,

LL-14%

L -37%

M -35%

MS-11%

S - 3%

SS-0%(0.5% 이하)로 되어 있어

분명하게 난중이 대란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.

- 특히 GP 센터에서는 量販店이 L,M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.

이에 대하여 계란도매상 가운데에는,

- ① 현행규격이 계란용기나 TRAY(쟁반, 알

은 상자)를 쓸 수 있는 막바지 한계에 달해 있어 다시 중량을 높지게 되면 용기는 모두 재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.

② 현행규격은 정착되어 있으며 특히 상자에 넣는 갯수는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로 정착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면 혼란이 생긴다.

③ SS 사이즈라 하더라도 규격외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다.

④ 6g 폭을 7g 폭으로 넓힌다는 것은 동일 사이즈중의 계란의 크고작은 폭이 커진다.

등의 반대의견도 있으나, 조직적으로 표면화된 의견은 아니다.

- 농림수산성에서도 학제내의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라는 것과 실제에 있어서 평균난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규격개정작업을 실시하는데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. *

안 내

— 브로일러 계열화 생산 추진업체 시찰 —

○일 시 : '85. 3. 27(수) 11:00~18:00

○업체 : 천호인티그레이션주식회사(경기도 동두천 소재)

○교통편 : 본회에서 왕복 버스 준비(출발: 본회사무실 앞)

○회비 : 1인당 7,000 원(교통비 및 점심값)

○신청 : '85. 3. 25(월)까지 본회사무국에 신청 바람

(차량준비관계로 선착순 40명으로 마감함)

○참고사항 : 최신시설을 갖춘 천호도계장 및 계열 생산농장을 시찰하고 천호인티그레이션(주)의 계열화생산 사업추진계획 계열주체 및 계약농가와의 대담(질의 응답) 등을 통해 앞으로 회원들의 브로일러 사업에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하오니 뜻이 있는 회원들은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.